

‘지상에 아직 남은 이 쓸쓸한 사랑들’

김익두 교수, 5번째 시집
‘지상에 남은 술잔’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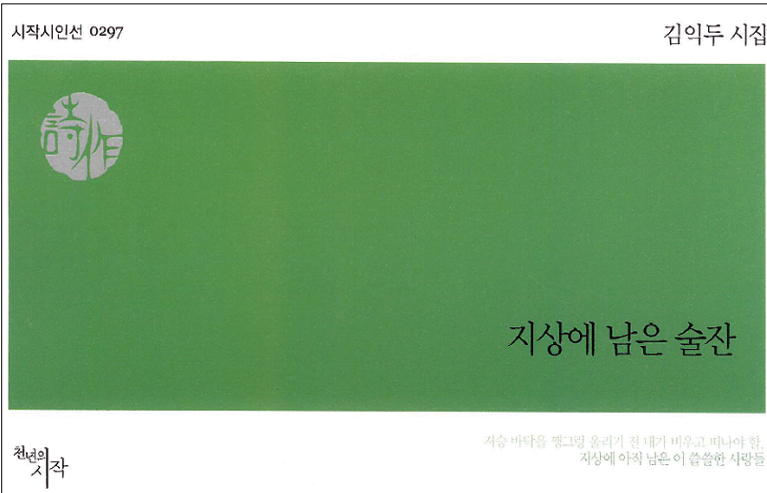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김익두 교수(인문대 국어국문학과)가 시집 ‘지상에 남은 술잔’ (천년의시작)을 발간했다.

김 교수의 이번 시집은 첫시집 ‘햇볕 쬐러 나 오다가’ (신아, 1990), ‘서릿길’ (문학동네, 1999), ‘숲에서 사람을 보다’ (천년의시작, 2015), ‘녹양 방초’ (문예원, 2017)에 이어 다섯 번째 시집이다. 총 4부로 나뉘어 총 96편의 시가 실려 있고, 원로 문학평론가 호병탁 박사의 해설과, 소설가 이병천, 윤호, 서홍관 시인의 표사가 실려 있다.

김 교수는 이번 시집 권두언 ‘시인의 말’에서 “이제 세상의 인연으로부터 그만뒀거나 세상을 보게 되니, 그에 따라 보통 길이의 서정시 외에도, 짙막한 단시, 긴 호흡의 산문시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한다.

또한 이번 시집에 실린 시들의 특징에 관해서는, “골수에 사무친 체험들이 제 말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시의 장으로 나오도록, 몸에 배인 체험의 몸말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온갖 방언들도 자연스레 밀물져 나오게 되었다”고 첨언한다.

해설을 쓴 호병탁 평론가는, “김익두 시인의 이번 시들은 그가 평생을 젖어 살아온 전라도



김익두 교수의 시집 ‘지상에 남은 술잔’

민요, 판소리 가락과, 육화된 전라도 방언들이 한몸져서, 그의 시세계를 웅숭깊고 흰출한 득음이 경지로 인도해 간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교수의 오랜 동료 선배인 소설가 이병천은 그의 이번 시집을 “젊은 날의 분노·피울음·좌절·욕망·환희·방황 등이 모두 한 데 버무려져, 전라도 육자배기를 읊조리는 듯한 공작은 시감각의 절정을 듣는 듯하다”고 평했다.

역시 표사를 쓴 윤호 시인은 그의 시가 “존재의 그늘에 어른대는 서늘한 결핍의 무늬들을 충실감으로 바꿔내는 시학”을 구사한다고 했다. 또 다른 표사에서 서홍관 시인은, “익두 형의 시가 이제는 인생의 허무와 외로움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말한다.

/장은성 기자

전주 그레이스앙상블, 중증 환자에게 희망 전달 재능기부

전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 애호가들이 암 등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지난 28일 음악재능기부단체 그레이스앙상블은 25일 전주 예송요양병원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레이스앙상블의 이번 공연은 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음악을 통한 삶의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이날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접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보이며 환자들과 함께 호흡했다. 이들은 앙상블 연주를 비롯한 플루트 연주곡 아이렌다이스(Irish), 영

화 국가대표 88 중 하나인 버터플라이 등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했다.

지난 2014년 4월 창단된 그레이스앙상블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시민이 알 수 있는 곡을 선별, 이를 연주하며 관객과 눈높이를 함께하고 있다.

음악교사와 전공자, 애호가들로 구성된 이들은 창단 이후 목정호송년음악회, 도심속 열린정원 콘서트, 어이당 음악회 등을 통해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종교단체와 병원 등에서 재능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함께 희망을 연주하고 있다.

한승호 단장은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이번 공연을 진행했다”며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지역과 함께 하는 호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대한불교 진각종 제13대 총인, 경정 정사 추대

대한불교 진각종 제13대 총인에 경정(敬淨) 정사가 추대됐다. 진각종 총인추대위원회는 최근 서울 총인원에서 경정 정사를 추대했다. 임기는 8월 1일부터 5년이다.

경정 정사는 1976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1981년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인도 델리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종단 입문 후 진선여자중학교 정교, 행원심인당 주교, 상륜심인당 주교, 불승심인당 주교, 신덕심인당 주교, 대전교구청장, 교육원 교법부장, 제7대 총의회 의원, 위덕대 불교학과 교수, 박물관장, 대학원장, 밀교문화연구원장, 부총장 등을 거쳤다.

제10, 11대 교육원장, 진각종유지재단



가승 제도를 갖고 있다.

/뉴시스

매일 저녁 8시 남원 광한루원서 ‘한여름 밤의 소리여행’

남원시에서는 피서객과 시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사하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을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21일간 매일 저녁 8시 광한루원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광한루 600년을 기념해 그동안 사랑의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공연을 광한루원으로 옮겨 진행하며, 금, 토요일에는 ‘한옥차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남원아리랑’이 오늘이 오늘이소서’를 공연한다.

남원시립국악단의 국악공연으로 시작된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은 올해로 24년째를 맞았으며, 그동안 여름 휴가철 남원을 찾아온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을 펼치고 있다.

국악, 농악, 클래식, 대중가요, 포크 등 다양하고 풍성한 공연으로 구성된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은 국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남원시립국악단의 국악콘서트를 시작으로 호남좌도·우도 농악,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 가곡과 오페라의 향연 등 매일 밤 8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여름철 남원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낮에는 지리산의 시원한 계곡과 둘레길에서, 밤에는 여름밤의 아름다운 공연을 즐기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정읍시립국악단 무용부 상임 단원 김은나씨가 제6회 곡성 통일 전국 종합예술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국악 명인의 최고로 ‘우뚝’

정읍시립국악단 상임 단원 김은나씨,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
‘곡성 통일 전국 종합예술대전’서 최고 경연 기량 뽐내

정읍시립국악단 무용부 상임 단원 김은나(42)씨가 제6회 곡성 통일 전국 종합예술대전'에서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상을 차지했다.

지난 20일과 21일 전남 곡성에서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며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450여 명의 경연자가 참여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명인부 무용부에 출전해 대통령상을 거머쥔 김 단원은 “이 상을 작고하신 임이조(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 조교이자 제97호 살풀이 이수자) 선생님께서 바친다”며 영광을 스승에게 돌렸다.

김은나 단원은 조선대학교 무용과를 졸업하고 후 임이조 선생에게 살풀이와 승무, 교방무, 입춤, 한량무를 사사 받았다.

2001년 정읍시립국악단에 입단해 왕성하게 활동 중인 김 단원은 이번 대회 대통령

상 수상으로 국악 명인의 최고 반열에 올랐다.

지난 2010년 ‘순창 전국 국악대전 경연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한 재원으로 국악의 고장 정읍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단원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덧칠 없이 정통성을 유지하며 고유의 맛을 살려 올곧게 전통 창작인무 활동을 해보고 싶다”며 “정읍시립국악단 단원으로 또 정읍의 무용인으로써 길이 남기 위해 수년 춤 문화제인 신관철 선생의 지도 권달과 함께 배움의 길을 더욱 열심히 걷겠다”는 각오도 피력했다.

한편, 이 대회는 장관계, 김명환 선생의 예술혼이 살아있는 곡성에서 재능있는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